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

권덕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09년 출산율은 1.12명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종교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이 힘을 합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육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지와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제언에도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 및 교육서비스 개선, 교육비·주거비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물론, '보육'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기 위한 정책이자 아동과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여러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학습과 경험이 향후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아동기에 대한 투자 강화는 사회적으로도 큰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점차 핵가족, 소자녀 가구가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보육시설 등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육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경

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저출산 현상인데, 그 원인 중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과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원인 모두 '보육'의 강화를 통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분야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편적 정책, 둘째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 그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육아지원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보육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기본 방향 아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한 것이 하나의 축이다. 또 다른 축은 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평가인증제도 활성화, 아이사랑카드 도입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기존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각 가정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직장보육을 활성화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아가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들과의 연계를 통해 적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